

## 히타치에너지코리아, '일렉스 코리아 2026'서 디지털 혁신 및 지속가능 전력 솔루션 공개

히타치에너지코리아(대표 최석환)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일렉스 코리아 2026'에 참가해,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급변하는 한국 전력산업 환경 속에서 히타치에너지가 제시하는 미래 전력망의 방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Empowering a Sustainable Energy Future through Digital Innovation(디지털 혁신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이며, 히타치에너지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성, 전력망 현대화, 디지털 자산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스에서는 글로벌 기가와트(GW)급 프로젝트에 적용 중인 최신 강화형 HVDC Light® 솔루션의 3D 모델을 공개합니다. HVDC Light®는 빠른 양방향 전력 송전, 정전 후 신속한 재기동,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여 전력망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Energy Expressway)' 구상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변전소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히타치에너지는 차세대 전력시장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 운영 플랫폼도 함께 제시합니다. 특히 Lumada APM(Asset Performance Management)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ISO 55000 기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 유지보수 우선순위와 적정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전력 자산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합니다.

MicroSCADA X는 발전소, 디지털 변전소, 해상풍력 등 다양한 전력 자산을 단일 플랫폼에서 실시간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웹 기반 HMI를 제공하여 별도의 설치 없이 원격 운영의 민첩성을 강화합니다.

초고압 부문에서는 히타치에너지의 대표 친환경 기술인 EconiQ® 초고압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입니다. EconiQ®는 온실가스 육불화황(SF6)을 사용하지 않는 SF6-Free 기술로, 세계 최초의 SF6-Free 420kV GIS와 550kV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에너지코리아는 이번 '일렉스 코리아 2026' 참가를 통해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모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HVDC 를 비롯한 최첨단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의 전력망 현대화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합니다.

**Media Contact**

김 민지

Manager

주식회사 히타치에너지코리아

[min-ji.kim@hitachienergy.com](mailto:min-ji.kim@hitachienergy.com)

**Hitachi Energy Korea, Ltd.**

히타치에너지코리아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며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입증된 실적과 세계 1 위의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90 개국에 약 40,0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 release is current as of the date of the press announcement, but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